

#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발표

국제경쟁·한국경쟁·한국단편경쟁 부문 등 15개 부문 16편 선정... 시상식 가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 단편경쟁 부문 등에서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범기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경쟁부문 감독 및 배우, 초청 게스트, 관객 등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부문을 비롯해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에서 시상하는 넷팩상,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지원상에 신설 배급지원상(주식회사 지원 후원)까지 총 15개 부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 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들 덕분에 전주국제영화제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졌다"며 "오늘 시상식을 통해 영화를 향한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하고, 영화인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무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제경쟁 대상은 잉그리드 포크로페 감독의 〈메이저 톤으로〉가 수상했다. 수상을 위해 단상에 선 잉그리드 포크로페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좋은 소감을 생각했다"며 "수상 소감으로 시상식에 웃음을 안기면서도 '저를 초청해주고 그리고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이 상은 저에게 정말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팜응옥 감독의 〈풀리는 울지 않는다〉가 작품상(NH농협은행 후원), 장 밉티스트 뒤랑 감독의 〈스레기장의 개〉가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팜응옥 감독은 "작품상은 신인 감독인 저와 제작진 모두를 향한 격려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이 한국경쟁 대상(후지필름 코리아 후원)을 수상한 것에 더해 배우상과 왓차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3관왕을 달성한 남궁선 감독은 "저희 영화는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들께 이 영화가 많은 힘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부문 등에서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쟁 부문 신설 상인 배급지원상은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이 수상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신설된 배급지원상은 심사위원단의 선정을 받은 1편에 상금 한화 5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박정미 감독은 "지난 삶에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의 도움으로 제가 생존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영화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상의 기쁨을 내뿜었다. 배우상은 〈은빛 살구〉의 나예진 배우와 〈힘을 낼 시간〉의 최성은 배우가 수상했다. 정해일 감독의 〈언니 유택〉은 CGV상을 수상하고 김이소 감독의 〈나선의 연대기〉는 심사위원 특별언급으로 호명됐다.

특히 작년보다 191편 증가한 총 1,332편의 출품작 중 25편이 본선 심사를 거친 한국단편경쟁에서 대상(후지필름 코리아 후원)은 공선정 감독의 〈작별〉에게 돌아갔다. 공선정 감독은 "앞으로도 뭔가 현실에서 말해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굳이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단편경쟁 감독상(교보생명 후원)은 임지선 감독의 〈한젤: 두 개의 고북치마〉에게 수여됐다. 임지선 감독은 "작품의 성격상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너무 놀랍고 감사드립니다"며 수상에 대한 기

쁨을 표했다. 심사위원특별상은 박세영 감독의 〈땅거미〉가 받았다. 단상에 오른 박세영 감독은 "여태까지 계속 만든 영화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이게 무슨 영화냐'라는 질문을 받아왔다"며 "계속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도 된다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도 하겠다"고 밝혔다. 총 4개 상을 시상한 특별 부문의 경우, 멕시코국립시네테카에서 한국 장편영화 전체 상영작 중 1편을 선정해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을 지원하는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지원상은 김솔혜, 이도진 감독의 〈통잡〉에 돌아갔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심사위원단이 비경쟁부문 아시아 영화 상영작 중 1편을 선정해 시상하는 넷팩상은 이별 타브리츠 감독의 〈편지 드림크〉가 수상했다.

지역공모 출품작 중 1편을 선정하는 J 비전상은 〈너에게 닿기를〉의 오재욱 감독이 수상했다. 오재욱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혹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술과 창작에 늘 관심 가져주는데 제가 몰라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영화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한국 장면 다큐멘터리 상영작 중에서 1편을 선정하는 다큐멘터리상(진도터스 후원)은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 그림 화기에에 정기전 '유연한 경계'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22일까지 개최

그림 화기에에는 9~22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유연한 경계'라는 주제로 13번째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계'라 함은 이것과 그것의 사이이자 중간이다.

어떤 이는 '세상의 모든 경계에선 꽃이 핀다'라고 했다. 너와 나의 공간에서 긍정으로 꽃피는 경계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공간의 필요충분 조건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전시는 14명의 작가들이 한 인간으로서, 나아가 작가이자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생활인으로서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행복과 애환을 그 '경계'에 서서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예정이다.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 사회적 자아로서의 딜레마가 예술세계를 통해 어떻게 승화되고 표현되었는지 그 '경계'에서 평범하지만 유연한 목소리로 조망하고자 한다.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보통의 우리들에게 위로와 헌사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림 화기에에는 2011년 12월 뜻을 모으고 2012년 12월 처음 그 뜻을 펼쳐보았다. 참여작가는 강현태, 강희경, 김선강, 김연남, 김수진, 고보연, 양순실, 이일순, 이은경, 이주리, 여은희, 장영애, 정미경, 차유



림, 탁소연으로 한국화, 서양화, 입체, 설치미술, 유리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5명의 작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 각각의 보따리에 담긴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 보따리에 '나-타인'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성장했다.

전시기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2-722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공개

전체 상영작·프로그램 공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 선정

6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2024. 6. 5. ~ 6. 9.)가 올해 개막작과 함께 총 21개작 96편의 상영작을 공개하고 예매 오픈 입장을 확정했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개막작으로 장건재 감독의 최신작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를 선정하고 개최에 박차를 가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8년 고전영화에서 더 나아가 최신작에서부터 다큐멘터리까지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복합문화공연 형태의 영화를 기획, 제작해 개막작으로 선보여왔다. 영화와 동시대 음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오직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는 배우 고아성이 주연을 맡은 장건재 감독의 최신작 〈한국이 싫어서〉를 라이브 공연과 결합하여 무주산골영화제만을 위해 만든 융복합영화공연 버전이다. 장건재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권현정 음악감독이 음악연출을 맡아 준비 중인 이번 개막작은 이 영화에서 배우로 활약한 뮤지션 김빛달과 이현승 밴드가 영화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주며 영화제 현장에서의 영화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강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한국이 싫어서〉는 20대 후반의 '계나(고아성)'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뉴질랜드로 떠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이후 처음 공개된다.

한편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티켓은 오는 14일부터 16일상영과 토크 프로그램 예매가 시작되고, 16일부터는 개막식과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 및 패키지 예매가 이어진다. [네스트 액터 고인시] 특별 전시와 [키즈스테이지], [덕유산국립공원 야외상영] 등 무료로 자



유롭게 관람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기존처럼 풍성하게 준비된다.

또한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더욱 알차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16일에 처음 선보인다. 먼저 'KTX - 교통 패키지'는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과 KTX 왕복 열차 티켓(서울-대전역), 그리고 대전역과 무주드나무운동장 간의 순환 셔틀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다. '무주덕유산리조트 - 숙박 패키지'는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과 무주덕유산리조트 숙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 상품을 통해, 관객들은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통과 숙박을 예약하여 무주산골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불가한 초여름의 영화 축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 개막작을 비롯한 전체 상영작 및 프로그램, 티켓 패키지 상품 등 상세한 정보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성 기자

# 이리동중 오케스트라 '등곳길 행복음악회' 열어

이리동중학교(교장 김윤자)는 8일 등곳길 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 지정으로 창단돼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리동중 오케스트라는 1~3학년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 대부분이 중학교에 올라와 처음 악기를 다루지만 매주 점심시간, 방과후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구성은 현악기(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

본, 호른, 색소폰), 타악기 파드로 풀선 오케스트라다. 특히 익산지역 학생들의 꿈과 숨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등곳길 음악회를 주최한 김민수·김은민 교사는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마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등곳길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음악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악기 연주에 더욱 빠져들고 음악을 사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자 교장은 "아이들이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며 "5월 8일을 특별히 날로 만들어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도해 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국팔도 한지기행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국을 돌며 우리 한지문화를 탐방하는 '전국팔도 한지기행(2차)'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팔도 한지기행'은 한지의 역사와 활용을 살펴보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주 전통한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접답에 따르면 이번 2차 기행지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삼원갤러리와 더페이퍼점으로 오는 30일 방문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 온 종이의 특별함과 우수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한지관 누리집(jnhm.kr)을 참고하거나 전통한지팀(063-281-163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지기행은 모두 4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차는 4월 26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 페이퍼갤러리에서 종이의 기원과 역사를 배우며 한지의 우수성을 알아봤다.

김도영 원장은 "한지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지닌 종이로 시대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전국팔도 한지기행이 시민들에게 한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제73회 특별기획연주회 30일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73회 특별기획연주회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신창곡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시민들이 영화에서 들던 OST 곡이나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여 선정된 곡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이다. 공연 내용은 지난달 공고를 통해 선정된 시민 10명의 사연을 지휘자가 소개하고 이어 신창곡을 바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을 비롯하여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2악장〉, 〈드보르자키 교향곡 9번 4악장〉, 〈엔리코 모리코네 There

from Cinema Paradiso〉, 〈겨울왕국 OST In Summer〉, 〈겨울왕국 II Medley〉, 〈어벤저스〉 등 시민들이 많이 신청한 곡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이다. 예매는 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5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 국악 나들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주말 기획 토요일 국악 나들이를 예원당에서 오는 5월 18일 오후 3시에 창극단의 주역 소리꾼 4명이 들려주는 판소리 난대목을 펼친다.

이번 공연 출연자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에 재직하고 있는 젊은 단원들로, 국악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극 주역들의 판소리 난대목을 만나는 특별한 무대로, 첫 번째 감상할 판소리는 최광군이 들려줄 흥보가 중 제비노정 기부터 흥보 첫개 타는 대목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7일까지 전북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는 의료 혹은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기관 소개와 치료를 지원하고, 체류 기간 동안 출입국 관련 지원 및 관광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다.

아카데미는 이론 교육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견학으로 진행되며, 5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원광보건대학교 문화관 2층에서 총 13회차(55시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의료인환자 유치기관 견학,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업무와 실제, △의료관광에이전시사의 이해와 실제,

△의료관광 상품개발 교육 과정 등이다.

도내 의료기관 근무자 및 의료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자메일(ksjnm@wu.ac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교육을 70% 이상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3명을 선발해 3개월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의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

구해경 관광사업본부장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며 "의료관광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